

##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공감적 반응이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조 지 혜

조 용 주<sup>†</sup>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자기심리학자인 Kohut의 이론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 공감적 반응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권의 중,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청소년 남, 녀 77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와 Mplus 7.4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경로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이 증가할수록 자기위로능력은 증가하고, 자기위로능력이 증가할수록 내현적 자기애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는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이 증가할수록 자기자비는 증가하고, 자기자비가 증가할수록 내현적 자기애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변인으로써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 내현적 자기애, 자기위로능력, 자기자비

\* 본 연구는 조지혜(2019)의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이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조용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과, (14662)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K315

Tel: 02-2164-4085, E-mail: yjj3141@hanmail.net

현대사회는 자기중심적 가치를 추구(Markus & Kitayama, 1994)하는 사회로써, 개인의 독특성, 우월성, 주도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에적 사회(Lasch, 1979)이자, 특권의식의 사회(Twenge, Cambell, 2009)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에적 사회의 흐름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가족구조의 변화, 개인화된 미디어 활용 등은 청소년들의 자기에적 성향을 부추기고 있으며,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마상욱, 2019). 한국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에 따르면 ‘공익을 위한다고 해도 나의 권리가 포기되거나 제한될 수는 없다’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45%의 높은 긍정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결혼은 부모님의 의사보다는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질문엔 76.4%의 높은 긍정 응답률을 나타냈다(LG경제연구원, 2011).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기의 자기에적 특성이 만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자기에 형성 및 발달의 중요한 전환 시점으로(Kohut & Wolf, 1990), 병리적 자기에의 발달로 이어지기 쉬운 취약한 자기에적 특성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이다(Bleiberg, 1994).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과 상상적 관중, 개인적 우화वाद 같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독특성(김진희, 2011)을 나타내며 자기에적 특성과 비슷한 면을 보인다(이상미, 2009; Elkind, 1967). 이러한 청소년기의 자기에적 특성은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리적인 심리적 장애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기의 과도한 자기에가 성격특성으로 고착될 경우, 심리적 장애 요인(권석만, 한수정, 2000; 김진희, 2011)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청소년기의 자기에 발달 연구는 중요하다.

자기에의 발달에 대하여 많은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해왔다. 자기에를 심리현상의 중요한 개념으로 처음 언급한 Freud(1914)는 성장 과정에서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유아가 리비도를 대상으로 전환하지 못하여 병리적 자기에가 발생함을 주장하였으며, Kernberg(1975)는 유아인 자녀가 주 양육자로부터 공감적 양육을 받지 못하고 거부나 학대, 방임 등과 같은 양육을 받음으로써 자기에적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Millon(1981)은 이와 반대로 주 양육자가 자녀에게 과도한 애정을 주므로 인해 과도한 자기에가 발달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에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자기에에 대하여 병리적인 측면으로 설명한 학자들과는 달리 Kohut(1971, 1977)은 자기에를 정상적인 발달과정으로 봄으로써 건강한 자기에와 병리적 자기에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Kohut(1971, 1977)에 의하면 생애 초기의 자녀는 두 축의 자기에적 욕구를 구축하여 부모와의 융합을 통해 건강한 자기에로 발달시켜 나간다고 보았다. 여기에서의 자기에적 욕구는 이상화된 부모원상(idealized parental image)과 과대자기(grandiose self)로, 이상화된 부모원상은 자기대상인 부모가 완전하며 자신은 그 일부라고 믿는 축이며, 과대자기(grandiose self)는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믿는 축이다. 이러한 자녀의 자기에적 욕구는 부모의 공감적 반응을 통해 자기대상과의 융합을 경험하고 내면화하여 자기를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자기에적 욕구로부터 항상 시기적절하고 완벽하게 반응하는데 실패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욕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자녀가 경험하는 좌절은 점진

적이며 자기에적 긴장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좌절을 의미한다(Kohut, 1971, 1977). 이러한 최적의 좌절을 경험한 이상화된 부모원상은 융통성을 가진 초자아의 형태로, 과대자기는 현실적 야망을 가진 자기의 형태로 변형되어 응집된 건강한 자기로 발달하게 된다. 반면, 부모의 좌절 수준이 미약하거나 과도하게 강할 경우, 이상화된 부모원상과 지속적인 동일시로 인해 과도한 이상화를 나타내거나 자신의 좌절감을 보호하기 위해 웅대한 자기상에 집착을 하게 된다(조용주, 2010). 이러한 과정에 대해 Kohut(1971, 1977)은 변형적 내면화 과정(transmuting internalization)으로 설명하며, 건강한 자기로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발달 조건으로 보았다.

변형적 내면화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병리적인 자기에 발달 특성은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핵심 요인인 자기상에 대한 웅대성과 취약성과도 비슷한 특성을 나타낸다.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특징에 대하여 행동의 과장성, 특권의식, 과도한 찬사 요구, 착취적인 대인관계 등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주된 증상의 핵심은 자기상에 대한 웅대성과 취약성의 문제로 보았다. 웅대성은 자기상에 대한 웅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고양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취약성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하여 자기에적 욕구를 채우지 못해 나타나는 정서적 조절의 어려움을 뜻한다(이준득, 2005).

이러한 웅대성과 취약성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2가지 자기에적 특성으로 분류되었다. Wink(1991)와 Aktar & Thompson(1982)는 자기에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자기에와 과

민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자기에성이 가려지는 내현적 자기에로 구분을 하였는데, 특히 내현적 자기에에는 자신을 억제하고, 수줍어하며, 주위 시선에 집중되는 것을 피함으로써 자기에 성향이 드러나지 않아(김종욱, 2010), 외현적 자기에보다 주관적 불편감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Wink, 1991). 내현적 자기에에는 과민함과 예민한 모습을 나타내며, 그 내면에는 '나는 상처받아서 안되며, 거절당해서 안된다, 못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되고, 미움을 받아서도 안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러한 취약한 자기개념으로 인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살피며 자신의 위치 또는 상황에 대해 과도한 민감성을 나타낸다(윤성민, 신희천, 2007). 또한 타인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판의 단서에 초점을 두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한다(이아름, 2011). 이와 같은 내현적 자기에에는 취약한 자기개념과 과민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기에으로써(권석만, 한수정, 2000; 이준득, 2005),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보다 역기능적인(이강애, 2017; Wink, 1991) 내현적 자기에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에에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는데, 심리적 안녕감과 적응에서의 결손을 나타내며(Wink, 1991), 경험회피(이정례, 201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유보라, 2018), 사회적 회피(장연수, 2019), 사회불안(김지수, 2019), 반응적 공격성(홍혜미, 2016), 대인관계문제(손성은, 2021)와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병리적인 자기에 발달과 관련하여 특히 Kohut(1971, 1977)은 변형적 내면화 과정 중 부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때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이란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지각하고 수용하여 공감적인 반응을 해주는 것으로(조용주, 2010),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정서를 공유하는 과정(이찬주, 주영아, 2014)이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충분히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부모의 공감적인 양육 태도를 뜻한다. 이러한 부모의 공감적인 양육 태도는 양육자의 상황적인 돌봄 자체보다 자녀의 입장과 정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적 보살핌에 초점을 둔 양육태도로(조용주, 2010), 자기대상의 반영이자 자기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초적 영양분이 된다(Kohut, 1977).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 부모의 공감적 반응의 결핍은 성격의 병리적 발달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Winnicott, 1965)이 되며, 공허감, 외로움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Kernberg, 1975). 이상화된 부모원상이 과편화되어 자아의 결함을 가져오게 한다(Kohut, 1977).

부모의 공감적 반응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공감적 반응을 충분히 경험한 자녀는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고(Feshbach, 1995). 긍정적인 자기애와 높은 자존감(Trumpeter, Watson, O'Leary, & Weathington, 2008)을 갖게 하는 반면, 부모의 공감적 반응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예민하게 반응하고(이상미, 2009),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회피(Stein, Jang & Livesley, 2002)와 수줍음(Miller, 1995)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높은 거부민감성(유고은, 2011)을 나타내고 타인을 이용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성(마혜정, 2005)을 나타낸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년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거부민감성과 내현적 자기애가 높아짐(박우람, 홍상환, 2014)을 보고하였으며, 이윤희(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단절도식을 만들어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선모, 임혜경(2012)은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발달 수준의 시도를 막음으로써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하여 부모의 공감적인 정서반응은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발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한편, Kohut(1977)은 자기애 발달에서 부모의 공감적 반응과 함께 최적의 좌절을 수반한 변형적 내면화 과정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공감적 반응을 내면화한 자기는 변형적 내면화 과정에서 최적의 좌절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주며 안정시키는 심리 내적 기능을 발달시키게 된다(Kohut, 1971, 1977). 이러한 심리 내적 기능은 자기위로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위로능력(soothing ability)이란 불안이나 긴장과도 같은 부정적 정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oser, 1991). 이와 관련하여 Tolpin(1971)은 생애 초기의 자녀가 대상항상성이 획득되기 전, 중간대상으로써 과도기적 대상을 통해 자기위로능력이 발달됨을 주장하였다. Tolpin(1971)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공생관계를 통해 자신의 웅대성을 성취한 자녀는 이후 분리-개별화를 통해 현실의 좌절을 겪음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달래기 위해 어머니를 대신할 과도적 대상을

필요로 하게 되고(설동호, 2011), 과도적 대상은 자신의 어머니를 표상함으로써 위로해주는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과도적 대상을 통한 위로 경험을 내면화를 거친 자녀는 대상항상성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의 내적 기체에 의존하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안지은, 2017). Tolpin(1971)은 이러한 과정을 Kohut의 변형적 내면화 과정의 한 예로 설명하였으며(Hamilton, 1988), Kohut(1971, 1977)은 자기애적 욕구의 고착으로 인해 자기위로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할 경우, 병리적 자기애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박선영과 조용주(2017)는 내현적 자기애의 요인 중 인정욕구/과대자기, 환상과 과민/취약성 요인, 소심/자신감부족 요인에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보다 자기위로능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같이 자기위로능력은 변형적 내면화 과정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Kohut(1977)은 변형적 내면화 과정에서 이상화 감소의 측면을 중요하게 보았다. 부모의 공감을 내면화한 생애 초기의 자녀는 최적의 좌절로 인해 이상화가 수정되는 이상화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완벽한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된다(Kohut, 1971, 1977). 즉, 이상화 감소를 통해 대상과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수용한 변형된 자기는 정서적 긴장을 조절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고, 절망을 인내하며, 현실적 야망을 추구하는 심리 내적 기능들을 발달시키게 된다. 반면, 이상화 감소에 실패한 자기는 자신의 노력은 항상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는 전능적 확신과 영원한 성공 및 갈채를 향한 자기애적 욕구가 고착되어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병리적 자기애로 발달하게

된다. 이는 자기위로능력과는 또 다른 축의 발달과정이자 응집된 자기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상화 감소를 통한 현실적 한계를 수용하는 과정은 자기애적 구조 중 한 축의 발달과정으로써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Kohut(1977)이 제시한 바와 같이 현실적 한계를 수용하지 못하는 병리적 자기애의 취약성은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강선희, 정남운(2002)은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한 특성을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자기개념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이 같이 부정사건으로부터 현실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자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고통이나 실패의 상황에서 자신을 자비롭게 여기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균형 잡힌 알아차림을 하는 것으로(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Neff(2003a)는 자기자비를 자기애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자기자비는 정서를 조절하는 시스템 중 자기위로 시스템과 같은 휴식, 평화로운 느낌을 유발시키는 진정 체계에 근거를 둔 정서조절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Gilbert, 2010).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자비와 부적상관(고종숙, 2016; 안혜림, 2019; 오준호, 2019)을 나타냈으며, 자기자비를 매개하여 공격성(김성주, 정남운, 2016)과 평가염려 완벽주의(김다민, 이혜란, 2020), 분노표현(김길명, 이영선, 2020), 내면화된 수치심(김현이, 2019)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비가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자비는 이상화의 감소로 인한 현실의 불완전함과 한계들을 수용하는 응집된 자기애의 특성에도 유사한 측면을 나타낸다. 자기자비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 친절은 고난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고 인내하는 것을 뜻하며, 보편적 인간성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또한 마음챙김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과대해석하지 않고 비판단적이고도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Neff, 2003b). 즉, 자기자비는 부정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으로, 온정적인 자기수용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 개념이다(박세란, 2015). 이와 비슷한 개념을 나타내는 이상화 감소로 인한 응집된 자기의 형태는 자신이 전능하거나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유한성의 수용을 나타내며, 죽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고, 유머를 나타낸다(Kohut, 1971, 1977). 또한 자기자비와 이상화 감소로 인한 응집된 자기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공감능력을 나타내는데, 자기감정 인식 및 수용을 통한 타인 마음을 이해하는 측면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자기자비를 Kohut(1971, 1977)이 제시한 자기애 발달에서 이상화 감소를 통한 현실적 한계를 측정하는 대안적인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 관련 변인과 자기자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기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게 하고(안희정, 2012), 자기비하(조은

주, 이은희, 201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거부적인 양육태도와 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자비 발달을 저해할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정선, 홍상황, 2017), 부모애착과 자기자비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Neff & McGehee, 2010; 조현재, 김정미, 2011; 김신실, 유금란 2014; 허윤희, 2016)을 통해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에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자비가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부모의 공감적인 정서반응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Kohut(1971, 1977)은 자녀의 자기애 발달 과정에서 양육태도 중 어머니의 공감적인 정서반응에 대해 강조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적인 정서반응과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자기위로 능력과 자기자비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적인 정서반응과 관련하여 부모의 자기보고 편향성을 제외하기 위해(조용주, 2010) 어머니가 보고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적 반응의 수준을 측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Kohut(1971, 1977)은 변형적 내면화 과정에서 이상화된 부모원상과 과대 자기의 발달이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인 발달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즉, 변형적 내면화 과정에서 두 축의 자기애적 욕구는 발달 흐름이 동시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각각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Kohut(1971, 1977)의 견해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의 전체효과를 확인하고자 자기위로 능력과 자기자비 간의 관계를 분리된 축인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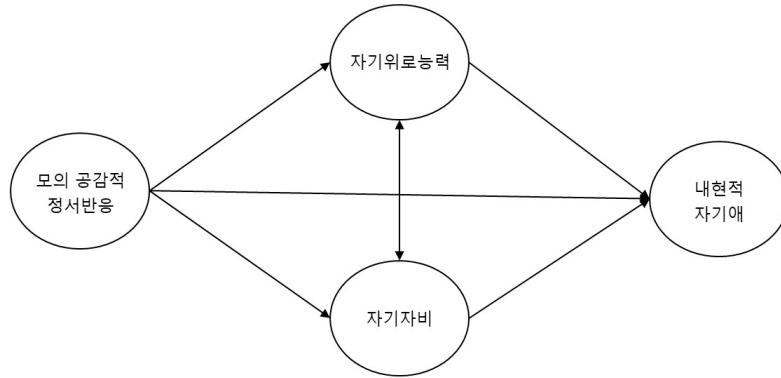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의 독립된 관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Kohut(1971, 1977)의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내현적 자기애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의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자기애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가설의 설정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내현적 자기애 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2.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내현적 자기애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의 재학생 78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안내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자 8명을 제외한 77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351명(45.5%), 여자 청소년이 392명(50.8%)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중학교 3학년이 235명(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210명(27.4%), 중학교 2학년이 160명(20.9%), 고등학교 1학년이 145명(18.8%), 고등학교 3학년이 14명(1.8%), 중학교 1학년이 3명(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동거 가족 형태로는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청소년이 642명(8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버지 편부모를 포함한 편부모와 함께 사는 외동 청소년이 42명(5.4%), 부모와 함께 사는 외동 청소년이 38명(4.9%), 조부모와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청소년이 18명(2.3%), 부모를 포함한 기타가족과 함께 사는 청소년이 10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을 경험한 청소년으로서, 어머니가 부재한

가족 형태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주 양육자에 대한 경험을 보고할 것으로 부탁하였고, 응답 결과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였다.

#### 측정도구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

본 연구에서는 조용주(2010)가 개발하여 타당화 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척도는 부모의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요인은 정서지각과 관점 수용으로 구성되었고, 정서적 요인은 공감적 정서반응과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한 정서반응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공감하고 온정적인 정서적 공감의 반응 정도를 측정하고자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 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제시된 문장에 일치함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며, 각 문항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공감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 .86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자기위로능력

본 연구에서는 Glassman(1989)에 의해 개발된 자기위로능력 척도(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로, 박효서(1999)가 다시 번안 및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자기위로능력 척도는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42 문항으로 신체적 위로하기(physical soothing), 회

복력(resiliency), 자기노출(disclosure), 스스로 위로하기(self-soothing)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하는 태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위요인 중 기분 나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달래고 위로할 수 있는 정도를 보고하는 스스로 위로하기(self-soothing) 9개의 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 중 ‘가까이 누군가 내 어깨나 등을 두드려 주면 기분이 나아지는 편이다’의 9번 문항은 스스로 정서를 달래는 개념과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저해하여 9번 문항을 삭제하여 분석하였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7점 척도로, 제시된 문장에 일치함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평정하였다. 각 문항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위로하기 .66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자기자비

본 연구는 Neff(2003b)가 개발하고, 김경의 등(2008)을 통해 한국판 타당화를 거친 한국판 자기 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 이하 K-SCS)를 사용하였다. 자기자비 척도 중 자기친절은 자신을 친절히 대하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태도 뜻하며, 자기판단은 스스로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뜻한다. 보편적 인간성은 자신의 부정적 경험에 대하여 인간이 겪는 보편적 경험으로써 바라보는 것이며 고립감은 외부로부터 스스로 고립되는 태도를 뜻한다. 마음챙김은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비판단적 태도를 보이



는 것이며, 과잉동일시는 실패 경험에 대해 확대해석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회피함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을 뜻한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제시된 문장에 일치함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다. 각 문항별 합산한 점수에 따라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친절 .74, 자기비판 .82, 보편적인간성 .70, 고립 .81, 마음챙김 .69, 과잉동일시 .77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내현적 자기에

본 연구에서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내현적 자기를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외현적 자기에 특성과 내현적 자기에 특성의 공통요인과 내현적 자기에만의 특성인 고유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은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으로, 목표불안정은 목표설정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낸 것이다. ‘과민/취약성’은 삶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고 평가하는 예민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며, ‘소심/자신감 부족’은 자신감이 부족하며 내향적이고 소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선영, 조용주, 2017).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의 27문항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제시된 문장에 일치함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다. 각 문항별 합산한 점수에 따라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불안정성 .86, 과민/취약성 .87, 소심/자신감부족 .81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변인들의 기술 통계 분석과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Mplus 7.4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감적 정서반응은 5문항을 그대로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자기위로능력은 단일요인이기 때문에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 방법을 통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해서 4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다음으로 자기자비와 내현적 자기에는 하위요인을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였다. 이때 자기자비의 경우 하위요인 중 부정적 속성을 가진 자기비판과 고립, 과잉동일시에 음분산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법효과(method effect)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으므로(최수미, 조영일, 2013) Neff(2003a)의 주장대로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의 긍정적 하위변인에 자기비판, 고립, 과잉동일시의 부정적 하위변인을 각각 합해서 3개의 하위요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내현적 자기에 간 관계에서 자기위로와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모형 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는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점수의 결과는 표 1에, 측정변인들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변인들의 전체 점수들 간 상관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를 제외한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 자기위로능력, 자기자비 간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_s=.293, -.548, p<.001$ ), 내현적 자기애는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 $r=-.299, p<.001$ ), 자기위로능력( $r=-.584, p<.001$ ), 자기자비( $r=-.664, p<.001$ )와의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과 표 2를 통해 주요변인들의 전체 점수 및 측정변인들의 정상성 가정을 살펴본 결과, 왜도( $\pm 2$  이하)와 첨도( $\pm 7$  이하) 모두 정상성 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들이 모형 내에 잠재 변인들을 타당하게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2$  검증은 표본 수가 커질수록 영가설이 기각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표본 크기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CFI,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TLI,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선택했다. 일반적으로 볼 때,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하며 RMSEA의 좋은 적합도는 .05이하, 양호한 적합도는 .05이상, .08이하, 나쁜 적합도는 .10이하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여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FI=.944, TLI=.930, RMSEA=.068(90% CI=.061~.075)).

다음으로 표 4를 통해 측정모형에서 나타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계수를 확인한 결과,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측

표 1.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결과

	공감적 정서반응	자기위로능력	자기자비	내현적 자기애
공감적 정서반응	-			
자기위로능력	.293***	-		
자기자비	.345***	.548***	-	
내현적 자기애	-.299***	-.584***	-.664***	-
평균	3.25	4.27	3.03	2.78
표준편차	.59	.77	.53	.68
왜도	-.77	.07	-.14	-.09
첨도	.69	-.02	.66	-.22

\* $p<.05$ , \*\* $p<.01$ , \*\*\* $p<.001$ .

표 2. 측정변인간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결과

	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	4-1	4-2	4-3
1-1. 공감적 정서반응1	-														
1-2. 공감적 정서반응2	.109 <sup>**</sup>	-													
1-3. 공감적 정서반응3	.563 <sup>***</sup>	.125 <sup>***</sup>	-												
1-4. 공감적 정서반응4	.533 <sup>***</sup>	.098 <sup>**</sup>	.730 <sup>***</sup>	-											
1-5. 공감적 정서반응5	.465 <sup>***</sup>	.038 <sup>**</sup>	.495 <sup>***</sup>	.470 <sup>***</sup>	-										
2-1. 자기위로능력1	.245 <sup>***</sup>	-.083 <sup>*</sup>	.291 <sup>***</sup>	.318 <sup>***</sup>	.188 <sup>**</sup>	-									
2-2. 자기위로능력2	.084 <sup>*</sup>	-.206 <sup>***</sup>	.122 <sup>***</sup>	.170 <sup>***</sup>	.115 <sup>**</sup>	.308 <sup>***</sup>	-								
2-3. 자기위로능력3	.141 <sup>***</sup>	-.183 <sup>***</sup>	.119 <sup>***</sup>	.109 <sup>**</sup>	.127 <sup>***</sup>	.474 <sup>***</sup>	.402 <sup>***</sup>	-							
2-4. 자기위로능력4	.269 <sup>***</sup>	.047 <sup>**</sup>	.312 <sup>***</sup>	.318 <sup>***</sup>	.263 <sup>***</sup>	.382 <sup>***</sup>	.095 <sup>**</sup>	.206 <sup>**</sup>	-						
3-1. 자기친척/자기비판	.224 <sup>***</sup>	-.100 <sup>**</sup>	.242 <sup>***</sup>	.262 <sup>***</sup>	.220 <sup>***</sup>	.354 <sup>***</sup>	.402 <sup>***</sup>	.441 <sup>***</sup>	.227 <sup>***</sup>	-					
3-2. 보편적 인간성/고립	.190 <sup>***</sup>	-.033 <sup>*</sup>	.272 <sup>***</sup>	.289 <sup>***</sup>	.240 <sup>***</sup>	.330 <sup>***</sup>	.333 <sup>***</sup>	.312 <sup>***</sup>	.251 <sup>***</sup>	.585 <sup>***</sup>	-				
3-3. 마음챙김/과잉동일시	.205 <sup>***</sup>	-.086 <sup>*</sup>	.227 <sup>***</sup>	.254 <sup>***</sup>	.225 <sup>***</sup>	.327 <sup>***</sup>	.453 <sup>***</sup>	.391 <sup>***</sup>	.241 <sup>***</sup>	.712 <sup>***</sup>	.635 <sup>***</sup>	-			
4-1. 목표불안정성	-.210 <sup>***</sup>	.173 <sup>***</sup>	-.234 <sup>***</sup>	-.241 <sup>***</sup>	-.234 <sup>***</sup>	-.338 <sup>***</sup>	-.359 <sup>***</sup>	-.390 <sup>***</sup>	-.270 <sup>***</sup>	-.477 <sup>***</sup>	-.420 <sup>***</sup>	-.493 <sup>***</sup>	-		
4-2. 과민/취약성	-.235 <sup>***</sup>	.147 <sup>***</sup>	-.227 <sup>***</sup>	-.243 <sup>***</sup>	-.248 <sup>***</sup>	-.333 <sup>***</sup>	-.467 <sup>***</sup>	-.465 <sup>***</sup>	-.214 <sup>***</sup>	-.636 <sup>***</sup>	-.534 <sup>***</sup>	-.653 <sup>***</sup>	.724 <sup>***</sup>	-	
4-3. 소심/자신감부족	-.156 <sup>***</sup>	.093 <sup>*</sup>	-.173 <sup>***</sup>	-.161 <sup>***</sup>	-.157 <sup>***</sup>	-.329 <sup>***</sup>	-.292 <sup>***</sup>	-.388 <sup>***</sup>	-.214 <sup>***</sup>	-.447 <sup>***</sup>	-.407 <sup>***</sup>	-.461 <sup>***</sup>	.593 <sup>***</sup>	.683 <sup>***</sup>	-
평균	3.23	2.69	3.19	3.27	3.23	4.68	4.06	4.05	4.92	3.00	3.10	2.99	2.81	2.71	2.84
표준편차	.73	.91	.76	.72	.75	1.23	1.79	1.29	1.29	.63	.58	.59	.77	.80	.72
왜도	-.79	-.19	-.78	-.90	-.84	-.23	-.01	.05	-.27	-.18	-.13	-.01	-.07	.07	-.03
첨도	.53	-.75	.37	.87	.51	-.01	-.98	-.27	-.38	.35	.66	.76	-.49	-.36	.02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90% C.I.)
측정모형	383.290	84	.944	.930	.068 (.061 ~ .075)

표 4.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잠재변인	측정변인	표준화계수	S.E.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	공감적 정서반응1	.694***	.022
	공감적 정서반응2	.734***	.020
	공감적 정서반응3	.829***	.015
	공감적 정서반응4	.823***	.016
	공감적 정서반응5	.623***	.025
자기위로능력	자기위로능력1	.636***	.030
	자기위로능력2	.572***	.031
	자기위로능력3	.675***	.028
	자기위로능력4	.395***	.037
자기자비	자기친절/자기비난	.828***	.015
	보편적인간성/고립	.724***	.020
	마음챙김/과잉동일시	.860***	.014
내현적 자기에	목표불안정성	.772***	.017
	과민/취약성	.942***	.011
	소심/자신감부족	.728***	.019

\*\*\*  $p < .001$ .

정변인들이 .5 이상으로 적재되어 각 요인의 측정변인들이 요인에 적합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므로,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내현적 자기에의 관계에서 미치는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변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두 매개변인인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에 오차공분산을 허용하였으며,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내현적 자기에의 직접효과 경로를 포함한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5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측정모형과 마찬가지로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맞춰 양호하여 자료가 구조모형에 잘 부합하는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90% C.I.)
연구모형	383.290	84	.944	.903	.068 (.061 ~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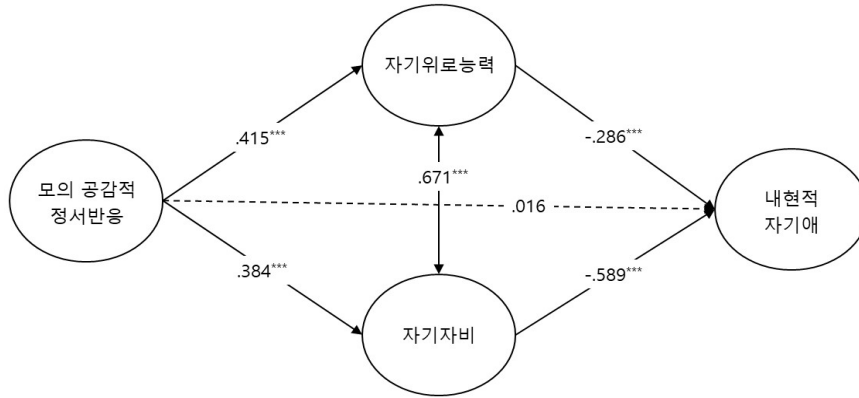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분석매개효과 분석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공감적 정서반응이 내현적 자기애로 향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변인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이 자기위로능력( $\beta=.415, p<.001$ )과 자기자비( $\beta=.384, p<.001$ )로 향하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했으며, 자기위로능력( $\beta=-.286, p<.001$ )과 자기자비( $\beta=-.589, p<.001$ )가 내현적 자기애로 향하는 경로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이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016, p=.713$ ). 자세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Sobel 검증이나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할 수 있다. 서영석(2010)에 의하면 간접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루

지 않기 때문에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z 검증(Sobel 검증)을 실시하게 될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면 간접효과의 정상분포 가정을 우회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지정하였고 자료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뢰구간은 BC 신뢰구간 추정법(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으로 검정하였다.

표 6은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모형의 간접효과 검증한 결과이다.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때는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모든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로써 공감적 정서반응이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를 통해 내현적 자기

표 6.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유의도 및 신뢰구간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95% C.I.	
				하한	상한
공감적 정서반응 → 자기위로능력	.415***	.415***	-	.312	.508
자기위로능력 → 내현적 자기애	-.286***	-.286***	-	-.421	-.144
공감적 정서반응 → 자기위로능력 → 내현적 자기애	-.119**	-	-.119**	-.184	-.061
공감적 정서반응 → 자기자비	.384***	.384***	-	.311	.459
자기자비 → 내현적 자기애	-.589***	-.589***	-	-.696	.462
공감적 정서반응 → 자기자비 → 내현적 자기애	-.226***	-	-.226***	-.294	-.167
공감적 정서반응 → 내현적 자기애	-.329	.016	-.345	-.074	.126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Bootstrap=1,000; 표준화계수로 기재함.

애로 향하는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Kohut의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위로능력은 모의 공감적 반응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인 박선영, 조용주(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수용받고 이해해주는 태도를 경험할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아지고, 자기위로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공감적인 반응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위로능력이 높아짐을 설명한 연구(오미경, 2018)와 부모의 안정적 애착을 경험한 자녀가 긍정적인 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함을 설명한 연구(이귀선, 2002), 자기애와 섭식장애,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위로능력의 곤란을 겪는다는 연구(Steinberg & Shaw, 1997), 내현적 자기애의 방어기제인 억압과 부인으로 인해 자기위로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공세영, 2014)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자기위로능력은 자신의 긴장과 불안을 스스로 달래는 능력(Moser, 1991)으로, Kohut (1971)은 부모의 공감적 양육을 경험한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내면화함으로써 자기위로능력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위로능력이 발달될수록 자녀는 부정적인 상황과 실패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내적자

원을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자기애의 발달을 이룰수 있게 된다(Kohut, 1971). 본 연구는 이러한 Kohut(1971)의 견해를 지지함에 따라, 자기위로능력의 완전매개효과를 통해 자녀의 자기애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모의 공감적 반응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모의 공감적 반응이 자기자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로써, 부모의 공감적인 반응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기자비가 높아지고, 자기자비가 높아질수록 내현적 자기애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공감적인 양육이 자녀의 자기자비를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킴을 설명한 고종숙(2016)의 연구와 부모 애착과 자기자비의 유의미한 관계를 내적작동모델로 설명한 윤혜경(2016)의 연구,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정적인 자기 평가(안희정, 2012)와 자기비하(조은주, 이은희, 201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자기자비는 자신의 고통에 고립되지 않고 결점과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는 것으로(장우혁, 2019), 본 연구의 결과는 모의 공감적 반응이 자녀에게 적절히 주어질수록 자신의 고통에 몰입되지 않고 자신을 자비롭게 여기게 됨으로써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는 각각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공감적 정서 반응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위로능력, 자기자비를 통한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이 내현적 자기애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공감적 반응이 결핍될수록 자녀는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가 낮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자녀는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더욱 회피하거나 고립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등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자기애 발달에서 변형적 내면화 과정을 강조한 Kohut(1971, 197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자녀의 긍정적인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자아발달과 인격 및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장한 대상관계이론가들(Freud, 1914; Kernberg, 1975; Klein, 1932; Millon, 1981)의 견해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은 자녀의 내면화를 통해 성장과정에서 실패 경험이 주어질 때마다 부정정서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자기위로능력과 이상화 감소로 인한 자신의 한계를 수용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된다. 이와 같이 확립된 내적자원은 자녀의 자기애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정정서에 고립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자기애 발달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자녀가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의 결핍으로 낮은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수준을 갖게 되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나타내더라도, 추후 상담적 개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를 발달시키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은 감소되고 건강한 자기애로의 발달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를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심리치료의 개입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공감적 정서반응이 자녀의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므로,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 증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은 직접적으로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의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에 영향을 미쳐 내현적 자기애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공감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모의 공감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므로(정호선, 정현희, 2020),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며 온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자녀의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가 증진되어 건강한 자기애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자기위로능력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괜찮게 볼 수 있는 자기자비를 증진시켜 건강한 자기애 발달을 도울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은 심리적 건강의 개선 및 지속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자기자비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박세란, 2015), 자기위로능력은 청소년기의 불안정하며 극단적인 정서상태를 완화하는 치료적 요인으로 제시됨(이

혜지, 2021)에 따라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내현적 자기애의 청소년들을 도울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내담자들이 나타내는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어려움이 상담 개입의 핵심 문제로 다루어짐에 따라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는 병리적 성격장애에 치료적 효과를 나타냄으로써(권영, 2014; 노상선, 조용래, 2013), 내현적 자기애의 내담자들에게도 치료적 개입을 통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담자는 공감을 통하여 내담자가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능력이 생기는지 살펴봄으로써, 상담자의 공감적 태도를 내담자가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내담자가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과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향상시켜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을 감소시킬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나타내는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의 공감과 자기위로능력, 자기자비, 내현적 자기애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검증한 연구들로서, 본 연구는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고자 변형적 내면화 과정의 이상화 감소를 측정하는 대안적 변인으로 자기자비를 설정하여 부모의 공감적 반응이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의 각각의 영향력을 명확히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은 자녀의 내현



적 자기애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는 각각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Kohut(1971, 1977)이 강조한 변형적 내면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자비가 내현적 자기애의 치료적 개입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과정 및 결과에 따른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의 표본을 확장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응답자가 설문 작성 시 심리적 방어나 바람직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양적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변인들의 특성 및 변인 간 관계구조를 명확히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 이외에 다른 연구방법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Kohut(1971, 1977)의 이론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Kohut(1971, 1977)은 자녀가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을 내면화하여 적절한 좌절을 경험했을 때 건강한 자기애 발달로 이어질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적 반응만을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좌절을 명확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부모의 공감과 자녀의 적절한 좌절을 함께 측정하고 연구한다면 Kohut의 이론을 검증하는

데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검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애 발달 경로를 살펴보고자 병리적 측면의 내현적 자기애 발달 경로만을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 Kohut이 제시한 부모의 공감과 건강한 자기애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면, 종합적인 자기애에 관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선모, 임혜경 (2012). 대학생의 과보호 및 부모화 경험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53-78.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고종숙 (2016).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자기자비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세영 (2014). 남자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자기위로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 사랑의 감정. 서울: 학지사.
- 권영 (2014).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분노행동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23-1044.

- 김길명, 이영선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403-421.
- 김다민, 이혜란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관계: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1669-1694.
- 김성주, 정남운 (2016). 내현적자기애, 자기자비 및 공격성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2(-).
- 김신실, 유금란 (2014). 청소년의 애착유형이 자기자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27-45.
- 김중욱 (2010). 중년여성의 자기애성향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수 (2019).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및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11). 청소년의 자기애성향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이 (2019).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 자기자비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상선, 조용래 (2013).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를 위한 자기자비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심리학회*, 32(1), 97-121.
- 마상욱 (2019).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청소년 활동방향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1), 61-80.
- 마혜정 (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애.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조용주 (2017).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과민정서반응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0), 83-105.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박세란 (2015). 자기자비가 자기조절과정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우람, 홍상황 (2014).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와의 중단적 인과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3), 455-477.
- 박정선, 홍상황 (201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기질 유형에 따른 자기자비의 차이: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서 (1999). 자기위로능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설동호 (2011). 대학 신입생들의 성격특성과 자기위로능력의 관계.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성은 (2021).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안지은 (2017).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림 (2019).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 -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희정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 수치심 및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IG경제연구원 (2011, 6, 13). 건강-외모 골몰, 고립감, SNS` 한국 소비자들 이렇게 바뀌었다. 7가지 라이프 스타일. etnews.  
<https://www.etnews.com/201106130006>에서 검색.
- 오미경 (2018). 부모의 공감과 자기위로능력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지각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준호 (2019).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고은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과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보라 (2018).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공격성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2.
- 윤혜경 (2016). 부모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애 (2017). 청소년기의 내·외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선 (2002).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미 (2009). 내현적 자기애와 청소년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름 (2011).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 (2018) 방임적 부모 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 자기개념 명료성과 정서적 단절도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유형학회, 19(1), 1-17.
- 이정례 (2017).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득 (2005).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찬주, 주영아 (2014). 부모공감 및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6), 121-145.
- 이혜지 (2021). 자기위로능력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수 (2019).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우혁 (2019). 자기자비 연구 동향 및 과제. *명상심리상담*, 22(-), 23-40
- 정호선, 정현희 (2020). 공감훈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공감 능력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9(3), 237-257.
- 조용주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주, 이은희 (201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한국청소년연구*, 24(1), 35-70.
- 조현재, 김정미 (2011). 대학생의 애착안정성과 대인불안의 관계: 자기표상 및 타인표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1), 201-222.
- 최수미, 조영일. (2013). 부정문항이 포함된 척도의 요인구조 및 방법효과 검증과 남녀간의 차이 비교: Rosenberg 자기존중감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571-589.
- 허윤희 (2016). 부모애착과 자기자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미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열등감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ktar, S., & Thomp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Philadelphi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ublications.
- Bleiberg, M. D. (1994). Normal and Pathological Narcissism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8(1), 30-51.
-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1025-1034.
- Feshbach, N. D. (1995). Parent Empathy; A key Element i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dvances in Early Education and Day Care*, 7, 3-26.
- Freud, S. (1914).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 J. Strachey(Eds.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 London: Hogarth Press.
- Gilbert, P. (2010). Compassion focused therapy: A special s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3(2), 95-96.
- Glassman, E. J. (1989).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Canada: York Univ.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milton, N. G.(1988). *Self and Others* New York: Jason Aronson.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 Aronson.
- Klein, M. (1932).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London: Hogarth.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hut, H., & Wolf, E. S.(1990). *The Disorders of Self and Their Treatment: An Outline*(1978), In *The Search for the Self* 3ed. P. Ornstein.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359-385.
- Lasch, C.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 New York: Norton.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ller, T. W. (1995). Stress adaptation in children: Theoretical models.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25(1), 5-14.
- Millon, T. (1981).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II, axis II*. John Wiley & Sons.
- Moser, M. L. (1991). *Transitional object and their relationship to self-soothing mechanism in later cyaged childre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Neff, K. (2003a).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2), 85-101.
- Neff, K. D. (2003b).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 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 Neff, K. D., & McGehee, P. (2010). Self-compassion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elf and Identity*, 9(3), 225-240.
- Stein, M. B., Jang, K. L., & Livesley, W. J. (2002). Heritability of social anxiety-related concern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 twin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 219-224.
- Steinberg, B. E., & Shaw, R. J. (1997). Bulimia as a disturbance of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capacity to self-soothe. *Addictive Behaviors*, 22(5), 699-710.
- Tolpin, M. (1971). On the beginnings of a cohesive self: An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transmuting internalization to the study of the transitional object and signal anxiety.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6(1), 316-352.
- Trumpeter, N. N., Watson, P. J., O'Leary, B. J., & Weathington, B. L. (2008). Self-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Relations of parental empathy and love inconsistency with narcissism,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1), 51-71.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9). *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 Simon and Schuster.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 variables: Problem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Winnicott, D. W. (1965). *The maturational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Studies in the theory of emotional development*. Oxford, England: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21. 08. 02

수정원고접수일 : 2021. 10. 05

게 재 결 정 일 : 2021. 12. 08

## **The Effect of Perceived Maternal Empathic Response on Covert Narcissism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Soothing and Self-Compassion**

**Ji-hye Jo**

**Yong-joo J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s Degree

Professor

Based on Kohut's theory, this study test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soothing and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aternal empathic response and covert narcissism. For this, data was collected from 772 students aged 14 - 19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nearby metropolitan areas. SPSS 22.0 and Mplus 7.4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elf-soothing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athic response and covert narcissism. Second, self-compassion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athic response and covert narcissis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Maternal response, adolescent covert narcissism, self-soothing, self-compassion